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10일) 2023년 3월 1일 수요일

남원 선원사 시왕도서 '항일운동 태극기' 발견

운문 스님 기자회견서 공개…지난해 11월 기도 중 발견





남원 선원사 지장시왕도 일부. 윗 사진은 변성대왕과 아래 사진은 변성대왕의 관모에 그려진 태극기. 시왕도는 1917년 그려진 것으로 3.1운동 2년 전 활용되던 태극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사진제공=선원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시왕도 조사해보니 1917년에 조성
호남불교 대표한 진응 스님 증명해
최초 태극기 '이응로 태극기' 유사
"백초월 태극기보다 2년 빨리 조성"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독립 의지를 담은 태극기의 원형이 사찰 불화에 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 선원사 주지 운문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내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시왕도에 그려진 태극기 그림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운문 스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명부전에서 지장기도를 하던 중 신비한 기운을 느껴 불화를 올려보았고, 그곳에서 태극기 관모를 쓴 시왕을 확인했다.

태극기는 지옥을 관장하는 10대왕 가운데 제6대왕인 변성대왕 관모에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가로 8.5×세로 3cm)로 그려져 있으며 태극의 지름은 2.2cm이다. 태극의 양은 홍색, 음은 뇌녹색(옅은 녹색)으로 채색됐으며, 양 태극을 백색이 둘러싸고, 위쪽에 건괘와 리괘, 아래쪽에 곤괘와 감괘를 배치했다.

지장시왕도 하단 화기에 따르면 불화는 당시 주지인 기선 스님이 대강백이자 화엄사 주지였던 진응 스님의 증명을 받아 수화승 만총 스님의 지휘로 1917년 11월 5일에 조성을 시작해 11월 17일 완성돼 대법당에 봉안됐다.

운문 스님은 "진응 스님은 당시 호남지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서 만해 스님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통 사정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진응 스님이 직접 증명한 불화에 태극기가 그려졌다는 것은 일제 치하 불교계의 독립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왕 중 변성대왕이 주관하는 독사지옥은 살인, 역적, 고문, 도둑질 등을 행한 사람을 벌하는 곳"이라며 "그런 변성대왕의 관모에 태극기를 그려넣은 것은 나라를 팔아넘긴 역적과 나라를 도둑질한 일제에게 그 죄 값을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극기 전문 연구가인 송명호 前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전문위원은 선원사 지장시왕도 태극기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봤다. 송 前전문위원은 "불화 중 태극기가 그려진 것은 처음"이라며 "'항일지장시왕도'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왕도를 조사한 김창균 조계종 성보위원(前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책임교수)은 태극기의 배치와 모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로 알려진 1882년 제작 '이응준 태극기'와 같은 구조라고 소개했다.

운문 스님은 "이응로 태극기의 모양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 선원사 시왕도 태극기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면서 "백초월 스님이 일장기에 그려넣은 태극기가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에 조성됐으니, 선원사 지장시왕도 태극기는 그보다 2년 빠르게 조성됐다. 백초월 스님 태극기의 전신이 선원사 태극기"라고 강조했다.

남원 선원사는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시왕도 태극기를 국가 지정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2024년 남원시와 함께 선원사 괘불(보물)과 지장시왕도 태극기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송 前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대한제국 초기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태극기의 정형화 과정을 살필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진응 스님과 만해 스님, 주지 기산 스님 등의 독립운동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연구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2월 22일 부처님 정각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세계 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주 자승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정각성지 울린 서원…"한국불교 변화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2월 22일 부다가야서 세계평화기원법회

자승 스님 "포교만이 살 길" 강조
관광지 된 韓·印 성지 안타까움
"민중에게 찾아가는 불교로 변화"
발원문 봉독하며 사부대중 눈물

"한국불교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순례공덕이 있다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자리에서 순례단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도, 순례단 개개인도, 멀리 한국에서 응원 온 불자들도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원을 세웠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22일 부다가야 마하보디대탑 앞에서 개최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순례단은 불제자의 각오를 담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법회는 개회 후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회주 자승 스님의 봉행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인사말, 〈화엄경〉 '세간정안품'의 성도찬탄, 참선과 108배, 사부대중의 발원문,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법회에 앞서 순례단은 삭발과 목욕재개로 몸과 마음을 정돈했다. 무명초를 제한 스님들의 모습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런 순례단에 회주 자승 스님의 봉행사는 가행정진을 위한 장군죽비와 같이 내려졌다. 자승 스님의 발언은 당초 준비된 봉행사와 다른 스님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에 청중들은 스님의 말에 바짝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안일하고 방일할 때 한국불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늘 포교만이 한국불교의 살 길이며,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걷고 있는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불교 중흥은 이루어 질 것이고, 하나의 관광유적지로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한국불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수많은 꽃과 공양물로 장엄돼 있는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의 모습을 역으로 '참담한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의 말 속에는 한국과 인도의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느꼈던 민중 속의 불심과 달리 관광지화 되고 있는 성지를 지켜본 수행자로서의 마음이 드러났다. 신행의 터전이 아닌 문화재로서의 가치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한국불교 미래 위기의식도 그 말에 섞여 있었다.

스님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심하기를 기원한다"고 대중을 당부하며 말을 끝맺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런 마음을 이어 받아 순례단의 행보는 구도행임을 강조하며 전법포교에 더욱더 힘쓸 것임을 대중 앞에서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승 스님의 마음을 이어받았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나라이기에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왔지만 막상 낯선 환경인 이곳에서 순례단은 온갖 난관을 넘어 원력으로 부처님 성도지까지 이르렀다. 이는 전대미문의 구도행"이라며 순례단을 먼저 치하했다.

이어 스님은 "산천이 푸르고 우뚝 선 대탑의 기운처럼 더 높은 깨달음의 길을 널리 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흙길을 따라 43일간 도보 순례를 진행하는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단의 공덕"이라고 말했다.

순례단을 비롯한 법회 참석 대중은 감동 속에서 진오 스님의 대표 발원문 낭독으로 함께 발원했다. 진오 스님이 작성한 보드가야 발원문은 처절한 참회와 함께 숭고한 결사 정신의 각오를 담은 것이었다. 이 발원문은 13일간 순례단이 걸으며 만난 인도 주민들과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르는 감회, 불교 중흥에 대한 서원을 담았다.

'초발심자경문'이 떠오르는 발원문 속에서 순례단은 순례에 임하는 초심을 되찾았다. 특히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로운 법문이었습니다"는 외침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발원문을 낭독하는 진오 스님 등 많은 대중이 눌러왔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순례단은 "순례 공덕이 있다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마음을 모으며 이날 법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중앙종회 사무총장 우봉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무관, 진각, 우석, 도심, 대진, 연규, 현법, 선조, 혜공, 정현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IBC 사무총장 담마께야 스님,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화엄사·조계사·화계사·수국사·선본사 등에서 500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마음을 모았다.

인도 부다가야=노덕현 기자 〈관련특집 4·5면〉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개원

삼천사 회주 성운스님의 큰 원력이 깃든 '안성 파라밀 요양병원'을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종단이 직영하는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스님의 핵심 종책 가운데 하나인 승려 요양병원 운영을 첫 번째로 실현시켰으며, 앞으로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종단 스님들이 노후에도 승가의 위의를 지키면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장능리)
전화| 031) 677-2613, 02) 2011-1982
후원(의료법인 계좌) : 국민은행 601501-01-45632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